



한국노벨과학포럼

# 성명서



이사장	백성기	공동대표	김태경, 주기재, 정성오, 장진영	회장	정윤하
사무총장	박원수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01 경인프라자 401호		

## 21대 대통령 후보, 수능시험 폐지를 공약하라

다가오는 2025년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지식산업시대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한국노벨과학포럼은 각 정당과 후보들이 발표한 10대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궐 선거라는 특성 탓인지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교육제도 혁신에 관한 깊고 넓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이를 다루는 인재가 곧 국가경쟁력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교육제도와 인재양성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AI 인재 20만 명 양성’, ‘AI 예산 증액’, ‘과학기술 연구자 지원’ 등 일부 단기적인 정책은 보이지만, 이를 가능케 할 교육 생태계의 혁신, 특히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비전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은 암기식·기억력 중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왜곡된 제도를 폐지하고 입시제도를 선진화한다는 공약이 눈에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수능시험은 객관식 ‘정답 고르기’ 방식이며 학생들의 독서 동기를 저해하고, 정신과 육체의 정상적인 발육을 가로막는 반사회적 제도입니다. 이

로 인해 창의력, 문제해결력, 융합적 사고력 등 21세기 핵심역량의 성장이 근본적으로 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능시험의 창시자인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조차 스스로 수능 시험 폐지를 주장해왔으며, 국내 명문 이공계대학인 포스텍은 이미 입학생 선발에서 수능시험 점수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한국노벨과학포럼은 한국인 노벨과학상 수상자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국회의 입법과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를 모아 수능시험 폐지 공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단기 선출직 리더들의 한계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는 중장기적인 제도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혜로운 지도자를 원합니다.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심성이 맑고, 또래 관계가 좋고, 독서를 많이 한 아이’를 인재로 정의하며, 선진국 대학과 기업은 이 기준으로 사람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 덕분에 선진국 아이들은 독서와 예술 활동, 놀이를 통해 사회성과 창의력을 함께 키우며, 지적 성장은 물론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혁신 없이는, 아무리 AI 인재 양성 목표를 제시하고 예산을 늘린다 해도, 진정한 의미의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기 어렵습니다. 지식산업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교육제도 혁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국노벨과학포럼은 학부모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약 10년 이후인 2035년부터는 현행 암기식·기억력 중심의 수능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중심의 평가제를 가까운 시일 내에 입법하겠다는 후보를 지지할 것을 천명합니다.

2025년 5월

(사)한국노벨과학포럼